2025학년도 제83기 해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2025. 3.20.(목)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목　　차]

1. 개　요 ..... p. 1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 p. 1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 p. 1

4.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p. 2

5. 1차시험 각 과목별 문항분석 결과 ..... p. 4

6. 2차시험(면접고사) 분석 결과 p.22

7. 향후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p.22

2025학년도 제83기 해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1. 개 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군사관학교 제83기 사관생도 선발시험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임.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평가 대상	전 형	계 열	과목명	문항수	교 과	비 고
필답 고사 (1차시험)	全 전형	공 통	국어	30개	국 어	대학수학 능력시험 형식
			영어	30개	영 어	
			수학Ⅰ,Ⅱ	22개	수 학	
		선 택	확률과 통계	8개		
			미적분	8개		
			기하	8개		
면접 고사 (2차시험)		공 통	면접시험	5개 분야	비교과	-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표

구 분	세부내용	이행여부	비 고
관련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공개	○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충실성)	○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	- 필답고사 공개 - 면접고사 비공개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인원 포함 여부	○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	

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자체규정(사관생도 선발예규 제3장)

제10조(목적)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연도 사관생도 선발시험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 및 고교 교과과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영향평가위"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영향평가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이때 위원 중 1인 이상은 현직 고교 교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영향평가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군사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1차 시험(필기시험) 문항분석 결과
2. 해당 연도 2차 시험(면접) 문항분석 결과
3. 기타 고교 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노력 등

다.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책	계 급	성 명
위원장	평가관리실장	중 령	이 ○ ○
위 원 (4명)	선 발 담 당	소 령	정 ○ ○
	고 교 교 사 (국어)	교 사	남 ○ ○
	고 교 교 사 (영어)	교 사	이 ○ ○
	고 교 교 사 (수학)	교 사	나 ○ ○
간 사	모 집 담 당	중 위	조 ○ ○

라. 2025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계획 수립 : 2월 2주

2)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 2월 2주

3) 평가 항목별 영향평가 시행 : 2월 3주 ~ 3월 3주

4)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지 : 3.31. 限

4.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가. 1차시험(필답고사)

1) 출제 원칙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

나)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

2) 출제 유형 : 대입 수학능력시험 유형 준용

3) 과목별 출제 범위

구 분		문항 수	출제범위
국어(공통)		30개	독서, 문학
영어(공통)		30개	영어Ⅰ, 영어Ⅱ
수학	인문계열	30개	(공통과목) 수학Ⅰ,Ⅱ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자연계열		(공통과목) 수학Ⅰ,Ⅱ (선택과목) 미적분, 기하

4) 출제 방법

가) 출제 전 전체 회의 : 출제 계획(출제범위 등), 지침(고교 교육과정 준수 등) 포함 교육

나) 영역별 문제 출제 : 해·육·공군 사관학교 교수 및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공동출제위원회” 주관 문제 출제

다) 출제 문제 검토 : 과목별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 주관 검토

라)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문제 출제

5) 출제 후 지원자에 이의신청 기회 부여

가) 시험문제 공개 후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문항별 고교 교과과정 준수 여부, 문항의 오류 등을 재확인

나) 이의 신청된 사항은 “공동출제위원회” 주관 답변

다) 이의신청서 양식

성 명			**소 속**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 소			
이의 내용				

나. 2차시험(면접고사)

1) 면접고사의 경우 교과 연계성은 낮으나, 모든 면접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답변 가능한 수준임.

* 질의 사항은 입시 보안을 위해 비공개

2) 2차시험 면접관 대상으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답변 가능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실시

3) 선행학습과 관련성이 없으며, 기본 정보만을 모집요강에 공지

* 모집요강 상 공지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면접	• 개별 또는 심층 면접 실시 * 국가관・역사관・안보관, 군인기본자세, 적응력, 인성・품성 등	점수부여

5. 1차시험 각 과목별 문항분석 결과

가. 국어영역

1)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나) 출제범위 : 독서, 문학

2) 문항 분석 결과

가) 독서(인문)

문항 번호	• 1~5번 문항
출제 의도	• 사실적 이해 능력, 추론적 이해 능력, 적용 능력을 평가 •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글의 핵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어휘력을 평가
검토 의견	• 독서 영역의 인문 분야 문항으로 매체의 영향력과 소통 방식에 관한 매클루언과 플루서의 견해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5개 문항을 출제함. 두 사람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글을 구조적으로 이해한 뒤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매체에 관한 두 사람의 견해에 대해 이해하고, 글의 논지 전개 방식, 핵심 내용, 세부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추론한 뒤 다른 상황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와, 고유어와 한자어를 문맥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문제들로, 그 성취수준을 판단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함.

나) 독서(사회)

문항 번호	• 6~10번 문항
출제 의도	• 사실적 이해 능력, 추론적 이해 능력, 적용 능력을 평가 • 세부 개념들을 비교·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검토 의견	• 독서 영역의 사회 분야 문항으로 강제 집행의 개념과 종류, 채무의 종류, 강제 집행의 요건 등에 관한 지문을 바탕으로 5개 문항을 출제함. 다양한 하위 종류와 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제 집행의 실행에 대해 적용·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생들이 접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 하위 개념들 및 채무에 관한 새로운 개념들이 나와 글을 이해하는데 까다로울 수 있음. 하지만 전체 관계를 구조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다면 글의 핵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여 실제 집행이 되는 상황을 추론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 고등학교 성취기준의 도달 여부를 판별하는 데 부합하는 문항으로 판단함.

다) 독서(과학기술)

문항 번호	• 10~15번 문항
출제 의도	• 글의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능력을 평가 • 글의 내용을 적용하고 확장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
검토 의견	• 독서 영역의 과학 분야 문항으로 멜라닌 세포와 멜라닌 합성 과정 등에 관한 글을 제시하고 5개 문항을 출제함. 글의 세부 내용과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내용을 바탕으로 확장하여 이해하는 능력, 어휘력을 평가하고자 함. • 피부층의 이해, 멜라닌 세포의 작용 과정, 티로신의 산화 과정 등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용 과정에 대한 이해가 복잡하고, 그 과정에 작용하는 현상과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의 효과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답을 도출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고 문항의 구성이 고등학교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있음.

라) 문학(현대시)

문항 번호	• 16~18번 문항
출제 의도	• 시의 표현상 특징과 시어의 의미 파악하는 등 현대시를 감상하는 능력을 평가 •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시의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
검토 의견	• 문학 영역의 현대시 작품으로 김기림의 「길」과 함민복의 「박수소리 1」을 제시하고 3개 문항을 출제함.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항,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시를 감상하는 문항을 출제함. • 낯설기는 하지만 형상화가 어렵지 않은 시이며, 표현상의 특징이나 시적 의미 파악하기, 외재적 관점에서 감상하는 문항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것들이기에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문항들이라고 판단함.

마) 문학(고전 시가)

문항 번호	• 19~22번 문항
출제 의도	• 시가의 표현상 특징, 시어의 역할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 •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고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평가
검토 의견	• 고전 시가 영역에서 시조 갈래로 박선장의 「오륜가」, 가사 갈래로 허전의 「고공가」를 제시하여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과 개별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4개 문항을 출제함. 시구의 효과를 파악하는 문항, 동일한 시어가 각 작품에서 하는 역할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항,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시구의 의미를 감상하는 문항, 시가의 전개상 특징을 파악하는 문항을 출제함. • 학생들에게 낯선 어휘는 각주로 제시하였으며 기본적으로 현대어로 된 작품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제시함. 문항도 고전 시가에서 기본적인 형태로 제시하였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문항으로 출제했다고 판단함.

바) 문학(현대소설)

문항 번호	• 23~26번 문항
출제 의도	• 작품의 서술상 특징, 상징적 의미 파악 능력을 평가 •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사건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
검토 의견	• 현대소설 영역에서는 황정은의 『백(百)의 그림자』의 일부를 제시하고 현대소설을 감상력을 평가하는 4개 문항을 출제함. 서술상의 특징 파악,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상징적 의미 파악,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문항을 출제함. • 학생들이 조금 낯설어 할 수 있는 개념과 해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사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그렇기에 교육과정의 현대소설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문항들이라 판단함.

사) 문학(고전소설)

문항 번호	• 27~30번 문항
출제 의도	• 서술상 특징, 장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 • 인물의 말하기 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
검토 의견	• 고전소설 영역에서는 작자 미상의 『강도몽유록』의 일부를 제시문으로 제시하고 4개 문항을 출제함. 서술상의 특징 파악, 특정 장면에서의 전개 방식 파악, 인물이 말한 바의 의도 추론,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함. • 이 작품은 학생들이 기출로 충분히 접해 보았을 유명한 작품으로 학생들이 쉽게 읽어 낼 수 있는 현대어 지문을 썼으며 작품의 큰 특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됨. 그렇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학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작품과 문항이라고 판단함.

3) 총평

2025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국어 영역 문제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학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있기에,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판별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항으로 출제되었다고 판단함.

나. 영어영역

1)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나) 출제범위 : 영어I, 영어II

2) 문항 분석 결과

가) 언어형식(어법) 및 어휘

문항 번호	• 1~4
출제 의도	• 주어진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표현 고르기 •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 순서대로 고르기 • 주어진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낱말 고르기 •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가장 적절한 낱말 고르기
검토 의견	• 어법의 정확성과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항은 선행 학습 없이도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문항별로 자세히 살펴본다면, 1번 문항에서는 관계대명사와 대명사, 분사구문, 동사의 형태 및 시제 일치 등의 문법 요소, 2번 문항에서는 재귀대명사 동사의 태 등의 문법 요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문법 요소이며 문장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점에서 문법에 대한 이해를 적절히 평가하고 있으며 교과서 학습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3번과 4번 문항의 어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단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학습 가능한 수준이며, 사교육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일부 어휘(considerable, combination, overeagerness)가 다소 난이도가 높은 수준일 수 있으나, 문맥을 활용하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4번 문항의 overeagerness는 어근과 접두사를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중심내용추론

문항 번호	• 5~13, 15~19
출제 의도	• 주어진 글의 내용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 글의 요지를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내용 고르기 • 밑줄 친 어구가 주어진 글 속에서 의미하는 바 고르기 • 글의 내용을 가장 잘 응집력 있게 묘사한 제목 고르기 • 글의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내용 고르기 •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가장 잘 표현한 내용 고르기 • 글이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내용 고르기 • 글을 쓴 목적 고르기 • 빈칸 추론
검토 의견	• 5번과 6번 문항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에서 다루는 대의 파악 유형으로 대수능 및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과 유사합니다. 두 문항 모두 논리적 사고와 독해 능력을 요구하며, 수험생들이 지문에서 핵심 내용을 추출하고 적절한 요지를 선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의도에 부합하도록 잘 출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5번 문항의 경우 수험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재임과 동시에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두루 친숙하게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6번 문항에서 난이도를 조절하여 변별을 꾀하고 있어 전체적인 조화 역시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7번 문항 역시 대수능 형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개념을 기반으로 출제되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 15~19번 문항은 고등학교 영어 읽기 수업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읽기 전략을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판단된다. 특별한 배경지식이 없어도 내용 이해가 가능하도록 '주제 제시 - 논거 또는 예시 - 핵심 정리'의 구조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논리적 글의 전개 방식을 가진 지문을 중심으로 출제되어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적 단서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 맥락추론

문항 번호	• 20~23
출제 의도	• 주어진 글 다음에, 주어진 세 개의 (A), (B), (C)가 내용에 맞게 배열된 순서 고르기 • 글의 흐름상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고르기
검토 의견	• 해당 문항들은 빈칸 추론 문항과 더불어 수험생들이 비교적 어렵다고 느끼는 난도를 포함하여 출제가 됩니다. 어휘, 지문의 내용, 문장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난도 조절 역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문항 20과 21은 난도가 비교적 낮은 문제(사건을 다루고 있어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와 난도가 비교적 높은 문제(문항 22와 23)로 적절하게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석 어휘가 지문에 포함되어 있으나 맥락을 통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며 이 역시 전국연합 학력평가 등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므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세부 정보

문항 번호	• 14
출제 의도	• 주어진 한 인물에 대한 전기적 사실을 읽고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고르기
검토 의견	• 문항 14 일치·불일치 문항은 난도가 가장 낮고 정답률이 높습니다. 그에 맞도록 지문과 선택지 구성이 잘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 선택지 2는 명확하게 지문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정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문의 서술 구조가 순차적으로 명확하며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수월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선행학습 없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 간접 쓰기

문항 번호	• 24
출제 의도	• 작문 시 내용을 파악하여 요약문 작성 능력 평가
검토 의견	• 지문의 핵심 내용이 뚜렷하고 자유로운 표현에서 거짓 정보의 확산이라는 논리 전개가 명확하여 요약문을 구성하기에 적절한 글이며, 선택지 역시 명확히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경지식 없이도 논리적인 읽기 전략을 활용하여 충분히 이해 가능하며, 한편으로는 빈칸 (B)의 정답을 찾기 위해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 간접쓰기의 출제 의도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문항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으며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바) 1지문 2문항(장문 독해)

문항 번호	• 25~30
출제 의도	• 독해 시 글의 제목을 파악하는 능력 평가 • 독해 시 글의 핵심 내용 및 흐름을 완성하는 단어, 어구, 절을 선택하여 글을 완성하는 능력 평가 • 독해 시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평가 • 독해 시 어휘 능력 평가 • 논리 전개 능력 평가 • 독해 시 지칭 대상 파악 능력 평가
검토 의견	• 장문 독해 유형의 문항들은 수험생의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 정보 분석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한 경우 해결 가능한 정도의 문장 구조와 흐름의 지문이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인 전국단위 평가에서 제목과 어휘 추론 유형이 출제되며 해당 문항들 역시 유사한 형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항 25와 26의 경우,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지문이라 중심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며, 문항 27, 28의 경우, 가치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어려운 어휘가 포함되어 있으나 문장 또는 전·후 어휘를 통해 의미 유추가 가능하여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총평

전체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출제 방식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유형별 지문의 난도, 선택지 구성 역시 대수능 또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에서 사용된 어려운 어휘는 문맥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난이도 조절 및 수험생들의 유추 능력,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사교육 없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며 출제 의도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수학영역

1)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나) 출제범위

구분	세부과목
공통과목	수학 Ⅰ, Ⅱ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2) 문항 분석 결과

가) 수학 Ⅰ (공통과목)

문항 번호	• 1번, 3번, 5번, 7번, 10번, 12번, 14번, 16번, 17번, 19번, 21번
출제 의도	• 수학 Ⅰ 영역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4문항), 삼각함수(3문항), 수열(4문항)에서 총 11문항을 출제하여 수학 Ⅰ의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계산능력(1문항), 이해능력(5문항), 문제해결능력(4문항), 추론능력(1문항)을 평가
검토 의견	• 수학 Ⅰ 영역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부터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까지 고르게 출제됨.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에서는 지수법칙(1번),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항(10번), 거듭제곱근(12번), 지수부등식(16번)과 같이 쉬운 정도 난도 수준의 문항부터 중간 정도 난도 수준의 문항까지 고르게 출제됨. •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삼각함수 그래프의 성질(5번), 코사인법칙의 성질(19번), 삼각함수의 성질(21번)과 같이 난이도 하·중·상에 각각 맞는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21번 문항의 해결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는 했으나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 수열 단원에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3번), 시그마 기호의 성질(7번),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14번), 등차수열의 일반항(17번)의 문항이 출제됨. 14번 문항이 익숙해 보이면서도 매우 적절한 난이도를 갖춘 문항이었음. • 수학 Ⅰ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었음.

나) 수학Ⅱ(공통과목)

문항 번호	• 2번, 4번, 6번, 8번, 9번, 11번, 13번, 15번, 18번, 20번, 22번
출제 의도	• 수학Ⅱ 영역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2문항), 다항함수의 미분법(5문항), 다항함수의 적분법(4문항)에서 총 11문항을 출제하여 수학Ⅱ의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계산능력(1문항), 개념이해능력(3문항), 문제해결능력(6문항), 추론능력(1문항)을 평가
검토 의견	• 수학Ⅱ 영역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다항함수의 미분법 5문항, 다항함수의 적분법 4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총 11문항 중 9문항이 미분과 적분 내용이 출제됨. •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에서는 함수의 극한의 수렴을 이해하여 함숫값을 계산하는 문항(6번)과 연속의 성질을 바탕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을 계산하는 문항(13번)이 출제되었음. • 다항함수의 미분법 단원에서는 미분계수의 정의(2번), 함수의 곱의 미분법(4번)은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로 대부분의 학생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보임. 함수의 최대와 최소 관련 문항(11번)은 닫힌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문항으로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임. 미분가능성의 정의를 이용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찾아내는 문항(15번)의 경우 삼차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배운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음. 함수의 그래프와 접선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항(20번) 역시 답을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 다항함수의 적분법 단원에서는 속도와 거리의 개념을 이해하는 문항(9번),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여 함숫값을 구하는 문항(18번), 정적분의 성질 및 함수의 그래프 추론 문항(22번) 등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들로 구성됨. • 수학Ⅱ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나) 확률과 통계(선택과목)

문항 번호	• 23~30번 문항
출제 의도	• 경우의 수(3문항), 확률(2문항), 통계(3문항)에서 총 8문항을 출제하여 확률과 통계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계산능력(1문항), 개념이해능력(2문항), 문제해결능력(5문항)을 평가
검토 의견	•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이항정리(25번)처럼 교과서의 개념을 충실히 이해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과 중복조합(27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28번)처럼 중난도 및 고난도 문항이 고루 출제되었음. 28번 문항의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를 빠짐없이 찾는 것이 까다로웠음. • 확률 단원에서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24번) 역시 교과서의 개념을 충실히 이해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고,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여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문항(30번) 역시 사교육의 도움이 없어도 상위권 학생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음. • 통계 단원에서는 이항분포의 분산을 구하는 문항(23번), 표본평균의 분포를 이해하고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주어진 확률을 구하는 문항(26번), 이산확률변수의 확률분포 및 평균을 구하는 문항(29번) 역시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임. • 확률과 통계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다) 미적분(선택과목)

문항 번호	• 23~30번 문항
출제 의도	• 수열의 극한(2문항), 미분법(3문항), 적분법(3문항)에서 총 8문항을 출제하여 미적분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계산능력(1문항), 개념이해능력(3문항), 문제해결능력(3문항), 추론능력(1문항)을 평가
검토 의견	•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 2문항, 미분법 3문항, 적분법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기본적인 계산능력을 묻는 문항부터 문제 해결 문항까지 다양하게 출제됨. •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는 근호를 포함한 수열의 극한(23번), 등비수열의 극한(30번)처럼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이 모두 출제되었음. 30번 문항의 경우 등비수열의 극한과 연속의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복잡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임. • 미분법 단원에서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하는 문항(25번), 삼각함수의 극한을 활용하는 문항(26번)은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학습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음. 특히 26번 문항의 경우에는 좌표평면에 도형을 그린 상황으로 출제되어 예전에 평가원에서 자주 기출제된 문항에 비해 식이 비교적 간단하게 도출되어 괜찮은 문항으로 여겨짐. 합성함수의 극대 또는 극소를 판정하는 문항(29번)은 이차함수와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문항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임. • 적분법 단원에서는 정적분을 활용하여 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문항(24번), 부분적분법을 이용하여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항(27번)은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접선의 방정식 및 정적분을 활용하여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항(28번)은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음. • 미적분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라) 기하(선택과목)

문항 번호	• 23~30번 문항
출제 의도	• 이차곡선(2문항), 평면벡터(3문항), 공간도형과 공간좌표(3문항)에서 총 8문항을 출제하여 기하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개념이해능력(4문항), 문제해결능력(3문항), 추론능력(1문항)을 평가
검토 의견	• 기하에서는 이차곡선 3문항, 평면벡터 2문항,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단순한 계산능력을 묻는 문항보다는 개념이해, 문제해결, 추론 등 다양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됨. • 이차곡선 단원에서는 포물선의 정의와 평행이동을 이해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항(26번), 초점을 공유하는 타원과 쌍곡선을 활용하는 문항(28번)이 출제됨. 이차곡선의 정의와 성질을 정확히 이해를 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음. • 평면벡터 단원에서는 방향벡터와 법선벡터를 이용하여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항(24번), 벡터의 덧셈과 벡터의 내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형을 제시한 문항(27번),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벡터의 크기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추론하는 문항(30번)이 출제됨. 벡터의 내적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학생은 27번 문항과 30번 문항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단원에서는 좌표공간에서의 대칭이동을 활용하는 문항(23번), 삼수선의 정리를 활용하는 문항(25번), 정사영을 이용하여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항(29번)이 출제됨.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23번 문항과 25번 문항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두 평면 ABD와 OBD가 서로 수직임을 떠올리지 못한 학생의 경우 29번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기하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구성되었음.

3) 총평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은 수험생들의 기본 개념 이해와 적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문항이 출제됨. 과목별로 핵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수학 실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시험이었다고 판단됨.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기초한 유형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2015개정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출제됨.

6. 2차시험(면접고사) 분석 결과

가. 평가항목

구 분		주요내용
면접고사	가치관	•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 정립 • 군인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군인 기본 자세	• 단정한 외모, 바른 외적 자세 • 발성의 명료함과 발음의 정확성 • 행동 습관 및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 발표 태도 및 논리적인 표현
	인성 품성	• 가정 및 학교 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격 형성 • 희생정신, 배려심, 봉사 정신 등 사관학교가 요구하는 품성
	적응력	• 강인한 입학 의지 및 뚜렷한 목적의식 • 해군, 해군 장교, 해군사관생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 및 불굴의 투지
	종합평가	• 위 4개 분야의 면접내용 재확인, 분야별 특이 소견자 확인

나. 총평

2차시험(면접고사)은 사관생도로서 기본 자질인 인성·품성, 가치관 등을 평가하고, 외적 자세·언어습관 등 군인기본자세, 향후 사관학교 생활 시 적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평가 항목들은 고교 교과와의 연계성은 낮으나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어 선행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7. 향후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으므로, 현 제도를 유지하며 향후에도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노력

나. 1차시험(필답고사) : “공동출제위원회” 사전회의 시 교육실시

*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난이도 조절 등 교육

다. 2차시험(면접고사) : 2차시험 면접관 대상으로 사전 교육 실시

* 면접 평가항목의 고교 교과와 연계성은 낮으나 고등학생 수준에서 답변 가능한 수준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교육